

# 북한개발소식

2023 JAN

01

통권 207호

## 이달의 주제

북한의 기독교 박해 동향과 시사점

## 탈북민 수기

이끄심-1화

## 북한뉴스

북한 무인기 5시간가량 영공 침투...  
군 격추실패 외



한국 오픈도어 북한선교연구소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 북한의 기독교 박해 동향과 시사점

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

## CONTENTS 2023 JAN



이달의 주제 :

### 북한의 기독교 박해 동향과 시사점

권두칼럼	01	북한의 기독교 박해 동향과 시사점
칼럼_1	07	이승주_ 김정은 시대 북한의 기독교 박해 동향과 우리가 할 일
칼럼_2	13	정베드로_ 북한의 기독교 박해와 한국교회의 사명
인터뷰	18	송혜연_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상)
탈북민 수기	24	김서윤_ 이끄심-1화
북한뉴스	30	북한 무인기 5시간가량 영공 침투...군 격추실패 외
서평	36	북한 아파트의 정치문 화사: 평양 건설과 김정은의 아파트 정치
북한 기도 제목	38	북한의 기독교 박해 중단과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외



22년 초만 하더라도 단 한 사람의 코로나 환자도 없다고 했던 북한이 22년 말에는 전국적인 코로나 전파를 겪고 상황 종료까지 선언했다. 그만큼 한 해 동안 다사다난했던 북한의 상황 속에서 당국은 강력한 통제를 돌파구로 삼았다. 방역을 명목으로 국경을 걸어 잠갔고 특별히 코로나 발병 사실을 인정한 5월 이후에는 대내외적으로 높은 수준의 봉쇄 조치가 실시되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 사상적 통제를 위해 새롭게 제정된 법률과 이를 근거로 한 단속 활동도 계속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는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다수의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했다. 북한 당국의 강화된 통제는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매우 위협적이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외부 사조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지만 그 안에 내포된 의미를 살펴보면 직간접적으로 기독교와 지하성도들을 겨냥하고 있다. 이미 여러 지하교회들이 적발되어 큰 고난을 겪었다는 소식이 여러

경로로 확인되고 있다. 북한의 기독교 박해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기점으로 더욱 극심해지고 있어 큰 우려를 낳고 있다. 북한의 박해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확인은 여전히 제한이 있다. 국내 입국 탈북자의 숫자도 최저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에 따라 탈북민의 증언에 상당부분 의존하는 북한의 실태 및 인권에 대한 연구의 진행도 어려워졌다. 그렇지만 이는 활동상의 제약일 뿐, 실제 박해가 감소했거나 박해상황이 개선된 정황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북한의 현 정책 방향과 그 실행의 양상을 미루어 볼 때 북한의 여전한 반기독교적인 입장은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다. 코로나19의 영향력이 상당히 약해진 지금이지만, 그 동안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은 이들은 훌륭한 의료 인프라와 경제력,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우리가 아닌 부족한 물자와 의료상황



속에서 가장 극심한 박해와 핍박을 견뎌낸 북녘의 성도들이다. 하나님께서는 남한의 교회와 성도들도 돌보시지만 분명 믿음으로 북녘 땅을 지키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향해 더욱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계실 줄로 믿는다. 2023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도 주님의 그 마음으로 북녘의 형제자매들을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길 바라며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 코로나 방역을 명분으로 한 통제 강화

22년 한 해 동안 북한은 강화된 통제 정책을 유지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북한의 통제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을 보이고 있다. 하나는 전염병의 확산을 막는 방역 목적의 통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외부 사조를 걸러내고 사상적인 순수성과 정권의 안정을 위하는 통제이다. 방역을 위한 통제 정책으로 대표적인 것은 국경 통제와 이동 제한, 그리고 격리조치를 꼽을 수 있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북한은 의료 인프라가 부족하고 제대로 된 코로나 진단 및 치료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극단적인 봉쇄와 통제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기본적으로 민간의 경제활동을 매우 위축시킨다. 외부로부터의 충분한 물자 수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가운데 이동통제로 사람들의 왕래도 어려워지면서 장마당 활동 전반이 위축되었다.

북한 당국은 장마당의 위축을 역으로 이용해 국가 주도의 경제에 힘을 실어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민간에 의해 형성된 장마당의 운영을 금지하고 모든 장마당의 국유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개인 이발관, 미장원, 가정교사, 길거리 음식 장사, 길거리 상품 판매, 리어카꾼, 자전거꾼 등 상인들의 사적 거래도 차단하고 국가 운영 편의봉사소나 급양관리소, 여객사업소 등 국가 운영 기관에 소속시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국가식량판매소를 신설하여 국가 기업소가 식량 및 식료품 판매를 담당하고 개인들의 식량 거래는 제한하고자 하는 모습도 관찰되고 있다.<sup>1</sup>

방역 명목의 이동 통제는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 뿐 아니라 반동사상문화법 제정 등과 맞물려 사회 전반에 걸쳐 정보의 흐름을 차단하는 효과를 만들어냈다.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서너 명이 모이는 모임도 단속의 대상이 될 정도로 철저한 통제가 이루어졌다. 사람들의 이동을 통제하기 위한 추가적인 검문소들이 설치되었고 여행을 위해서는 통행증에 더해 방역증명서까지 지참해야 했다. 북한이 코로나 방역을 위해 이동통제나 봉쇄 조치를 취한 것은 당연한 조치로 볼 수 있지만, 이러한 조치가 단순히 방역을 위해서만이 아닌 사상통제와 주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명분으로 활용되는 모습은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다행히 북한이 22년 8월에는 코로나 종식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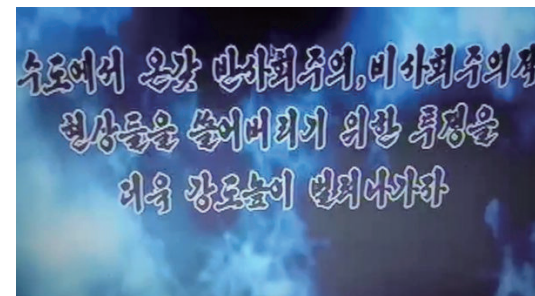
1 北, 장마당 금지.... 식량거래 통제 나섰다, 조선일보, 21년 3월 4일, <[https://www.chosun.com/politics/north\\_korea/2021/03/04/YZOFXKXKGZFDTOBM4L7JT6ZU7A/](https://www.chosun.com/politics/north_korea/2021/03/04/YZOFXKXKGZFDTOBM4L7JT6ZU7A/)>

선언하였고, 9월 말을 기점으로 북중간 화물 열차 운행도 재개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통제 일변도의 정책에도 모종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외부와의 교역과 관련하여 현재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임가공 부자재를 수입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수출이 본격화 될 것이라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sup>2</sup> 국내적으로도 방역 통제의 완화가 예상된다. 다만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발사와 포 사격 등 군사적 움직임, 그리고 그에 대응하는 한미 연합훈련 등으로 인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졌고, 이러한 긴장은 내부적으로는 기강 확립과 통제 명분으로 재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 북한의 사상문화통제와 기독교 탄압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정 및 시행은 북한 당국의 통제 강화가 단순 코로나 방역 때문만은 아님을 보여준다. 북한은 20년 12월 열린 제 14기 제 12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전원회의에서 반동사상문화법배격법을 채택했다. 이 법은 외부에서 유입된 영상이나 책자 등의 유입, 소지 및 배포는 물론이고 남한풍의 행동이나 어투까지도 단속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 법을 어겨 처벌을 받을 시 기존 북한 형법에 언급된 형량에 비해 1, 2단계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되며

2 北, 中서 임가공 부자재 수입...내년 임가공 수출 본격화할 듯, 데일리NK, 22년 12월 8일, <<https://www.dailynk.com/20221208-3/>>



〈북한 당국이 올해 상반기 제작한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단속 관련 영상 (사진=NK조선)〉

정치범 수용소 수감은 물론이고 사형까지 구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해당 법에 기독교에 대한 내용이 직접 언급되어있지는 않지만 성경책을 포함한 기독교 물품과 신앙 활동이 법에서 언급하는 주요 단속 물품과 행위에 포함되어 있어 기독교 역시 해당 법령의 주요 표적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간 북한은 특별 단속반을 조직하여 한류를 비롯한 외부 미디어나 사조의 유입을 단속해왔다. 하지만 관련 이슈로 공식적인 법령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 당국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정에 멈추지 않고 추가적인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21년 2월에는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단속 연합지휘부’를 조직하였으며<sup>3</sup> 21년 6월에는 해당 조직을 ‘82연합지휘부’로 상설화 한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sup>4</sup> 21년 9월에는 ‘청년교

3 [뉴스 동서남북] 북한 '비사회주의와의 투쟁' 강화..."간부 층에도 '한류' 확산", VOA, 21년 3월 19일, <[https://voakorea.com/a/korea\\_korea-politics\\_north-korea-1/6057130.html](https://voakorea.com/a/korea_korea-politics_north-korea-1/6057130.html)>

4 北 반사·비사연합지휘부, '82연합지휘부'로 변경...상설 조직 전환?, 데일리NK, 21년 11월 5일, <<https://www.dailynk.com/北-반사-비사연합지휘부-82연합지휘부로-변경>>



## 北, 성탄절 기념하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으로 처벌

장보양법'을 추가로 제정했다. 조선중앙TV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법은 총 5장·45개 조문으로 이뤄져 있으며 청년들의 사회주의 생활양식 확립을 위한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관련 위법행위를 했을 때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조항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sup>5</sup> 새로운 법의 제정과 단속 부서 조직은 자연스럽게 단속활동 강화로 이어진다. 사)통일미디어에서 22년 6-8월동안 북한 내 주민 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화 설문조사에 따르면 80%가 넘는 42명의 응답자가 코로나로 북중 국경이 봉쇄된 이후 외부의 정보를 접하는 게 더 위험해진 것으로 느끼고 있다고 답

했다. 응답자 중 7명은 실제로 해당 법 위반으로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간 사례를 접했다고 답했다.<sup>6</sup> NK조선이 최근 입수한 북한이 교육, 선전용으로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영상에서는 평양에서 야간 순찰 활동을 포함한 대대적인 단속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구역에서는 1천여 명의 주민들과 학생들이 자백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sup>7</sup>

기독교 관련 물품이나 활동도 중요한 단속대상이다. 코로나 펜데믹 이후에도 해외 주재원에 대한 불시 검열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성경책이 주요한 단속 물품으로 거론되기도 했고

6 북 주민 50명 미디어실태 조사 공개... "외부정보 접하면 관리소행", RFA, 22년 10월 18일 <[https://www.rfa.org/korean/in\\_focus/humanitarian-10182022094322.html](https://www.rfa.org/korean/in_focus/humanitarian-10182022094322.html)>

7 평양서 한류 소탕전... "2중 3중 야간순찰, 한 구역서 1000명 자백", NK조선, 22년 12월 26일, <<http://nk.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181285>>

<sup>8</sup>, 해외 파견 노동자들에 대한 사상 교육에서 특별히 기독교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등 반기독교 교육이 강화되었다는 소식도 있었다.<sup>9</sup> 성탄절을 대표적인 반사회주의문화로 지목하여 해외 주재원들에게도 성탄절 문화를 따라하거나 축하하는 모습이 적발될 시 반동으로 처벌된다는 증언도 있었다.<sup>10</sup>

북한의 외부 문화와 사상에 대한 통제와 검열은 방역 통제와 맞물려 전례 없는 강도로 진행되었으며, 그만큼 주민들의 삶을 옥죄었다. 한 언론에서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수가 코로나 펜데믹 기간 증가하여 21년 중순 기준 전체 수감자 수를 23만여 명까지 치솟았으나 열악한 환경과 고문 등으로 인한 사망자 발생으로 22년 중순에는 20만 명 수준으로 감소하였다고 분석했다.<sup>11, 12</sup> 이러한 보도가 북한의 현실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북한에서 과도한 수준의 통제와 처벌을 통한 공포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희생도 크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그 과정

8 北 당국, 中 주재원 대상 검열 강화... "불시에 가택 수사", 데일리NK, 20.12.22. <<https://www.dailynk.com/北-당국-中-주재원-대상-검열-강화-불시에-가택-수/>>

9 "통일 후 탈북자 우선 처단...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 교육서 강조", 데일리NK, 21.05.08. <<https://www.dailynk.com/통일-후-탈북자-우선-처단-북한-해외-파견-노동자/>>

10 "북, 크리스마스를 대표적인 반사회주의사상문화로 지목", 자유아시아방송, 20.12.25.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e-hm-12242020231709.html](https://www.rfa.org/korean/in_focus/ne-hm-12242020231709.html)>

11 "정치범수용소 수감자 총 23만2천명...작년 3월比 2만3천명 늘어", 데일리NK, 21.07.27. <<https://www.dailynk.com/210727-5/>>

12 북한 정치범수용소 수감 인원 지난해比 2만여 명 감소, 데일리NK, 22.08.26. <<https://www.dailynk.com/20220826-5/>>

에서 기독교에 대한 핍박도 한층 더 심해졌음은 물론이다.

## 북녘의 형제자매들을 위한 한국 교회의 기도와 관심이 필요한 때

앞서 언급한 내용들은 북한에서 은밀하게 신앙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 겪었던 박해 상황을 환경적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이를 통해서도 북한의 상황이 여전히 매우 어려우며 성도들의 고난이 참으로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박해 사례가 보고되는 일은 감소하였으니 체감 상 북한의 박해가 예전과 비슷하거나 조금은 감소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북한의 기독교 박해는 조금도 완화된 지 않았다. 북한의 국경이 조금씩 열리면서 내부의 소식도 점차 들려오는 가운데 그간 잘 들리지 않았던 코로나 기간 동안 북한에서 있었던 기독교 박해 사건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은 기독교인에 대한 강도 높은 박해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다. 성경 소지나 예수 영화 등의 미디어에 접촉했다는 이유로 처형당한 구체적인 사건들도 보고되고 있고, 비밀리에 예배 모임을 가지다가 적발된 지하교회의 사례들도 직간접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안타까운 사실은 북한의 성도들의 처한 상황이 이토록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의 그에 대한 관심과 기도는 전과 같지 않다는 점이다. 코로나 기간 동안 통일과 북한선교



# 김정은 시대 북한의 기독교 박해 동향과 우리가 할 일

이 승 주 박사 (전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인권감시본부장)



〈북중 국제열차가 지난 2015년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잇는 압록강대교를 통과해 평양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VOA)〉

관련 활동을 했던 많은 기관이나 교회가 사역을 중단하거나 철수하였고, 코로나 팬데믹이 마무리되어가는 현 시점에도 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정보적인 측면에서도 북한의 강력한 봉쇄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국가 간 교류 단절, 그리고 국내 입국 탈북자들의 숫자가 드라마틱하게 감소함에 따라 외부로 전해지는 북한 내부 소식이 양이 상당히 감소하였고, 그 만큼 성도들의 관심도 줄어들었다. 23년에는 연기되거나 중단되었던 것들이 다시금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종종 코로나 팬데믹 상황 종료가 늦어지는 듯한 해외 상황을 근거로 북한 선교는 지금은(또는 당분간) 제대로 할 수 없으며 장기적으로 통일 이후를 도모하는데 집중하자는 목소리도 들린다. 통일을 대비하며 준비하는 일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이는 의도치 않게 지금 현재 어려움에 처한 북녘의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외면하고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할 주님의 시대적 사명을 뒤로 미루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 무엇보다 해외 선교 환경의 개선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 선교현장은 북한의 국

경 봉쇄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고수 등으로 예상보다 더욱 긴 코로나 통제 상황을 겪었지만 2023년을 맞는 지금 그러한 정책들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북한은 이미 국가적인 코로나 확산을 겪었고 그로 인한 홍역을 치르기는 했지만 이제는 방역에 대한 우려를 덜고 대외 교역 재개와 경제 회복을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의 경우도 시진핑 3기 출범 이후 제로코로나 정책을 유지하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기는 했으나, ‘백지 시위’ 등 국내 민심의 악화에 따라 정책을 바꾸기 시작했고, 이제는 예상보다도 더욱 빠르게 격리나 봉쇄 조치 중단 등 위드코로나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각종 장애물과 장벽으로 꼽히던 많은 요소들이 개선되고 코로나 이전만큼은 아니지만 점차 길이 열리고 있다. 사랑의 반대는 증오가 아닌 무관심이라는 말이 있다.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금 북녘을 향해, 특히 세계 최악의 핍박 속에서 고통받는 북녘의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향해 기도의 제단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며, 그 사랑을 나누는 크리스천임을 증명하는 최소한의 믿음의 실천일 것이다. 🙏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 국경이 봉쇄되면서 북한의 기독교 박해 동향은 오리무중이 됐다. 그동안 많은 수의 기독교인들이 국경을 넘어 중국에 방문하여 식량을 구하거나 어느 정도 돈을 벌어 북한으로 돌아가면서 기독교의 복음을 가지고 신앙인으로서 삶을 영위해왔으나, 이러한 기독교인들의 활동은 현재로서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 한편,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중국 지역에서 활동하는 선교 활동 또한 위축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접촉 시대’인 중국에서의 활동 범주가 축소되면서 북한으로 유입되는 활동도 나오는 정보도 없는 상황이다. 기독교 박해의 새로운 사례나 정보 확인이 어려운 가운데 기존에 행해지던 ‘박해’의 양태를 근거로 현재의 북한 상황을 유추하고 관련한 요소를 정리하여 북한 기독교의 나아갈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는 2018년 5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가장 두

려워하는 종교는 기독교라고 말한바 있다.<sup>1</sup> 김정은 집권 이후 최근까지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후 ‘기독교를 접촉한 주민들을 체포하라’고 명령해 중국에서도 탈북 기독교인을 체포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고 한다. 지도자가 바뀐다 하더라도 기독교 박해를 약화시키는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 것일 수 있다. 이는 기독교의 영향력이 김씨 일가를 우상숭배하는 독재체제를 붕괴시키기 때문일 것이다. 북한 땅에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김일성, 김정일의 동상이 세워져 있고 이에 그치지 않고 매 가정마다 김일성, 김정일의 사진을 걸어놓고 아침, 저녁 절을 하는 등 숭배를 강요하고 있다. 우상 숭배는 당이 주체이며, 이를 어길 시 처벌을 받고 있다. 결국 세

1 김형은 BBC코리아, “북한과 기독교... 인연 혹은 악연의 시작”, 2018년 9월 19일자, <https://www.bbc.com/korean/news-45507082>



습 문제가 북한 기독교 박해의 핵심 고리이다.

## 생명을 걸어야만 하는 종교 생활

한국의 북한인권정보센터가 공개한 '2018 북한 종교자유 백서'에 따르면 박해를 당한 사례 중 사망은 17%를 차지해 전체 피해의 5분에 1에 달한다. 전체적으로 종교 박해를 겪을 경우 생존 비율이 낮아지는 것이다. 사상 없는 생존은 22%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가. 종교 활동 적발 시 처벌받는 수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 가량이 정치범수용소 행을 꼽았다. 미 국무부의 '2018 국제종교자유 보고서'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8~12만 명이 갇혀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종교적 이유로 수감돼 있다고 밝혔다.<sup>2</sup> 이는 성본<sup>3</sup> 과도 연동되는데, '정치범'이 된다는 것은 기독교인과 그 가족들이 사회적으로 배제된 계급으로 하락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혁명계층으로 분류되어 특수지역에서 거주하도록 제한받고 감시받는다. 과거 기독교인들에 대한 집단 추방은 즉각 집행되었으며, 주로 산골지역으로 유배하였고, 해당 지역은 함경북도였다. 계층적 하락은 추방으로 인한 거주지 변경과 식량 배급, 교육 수준 등 사회적 처우와도 연계된다.

2 북한 기독교: 성경책 소지하면 간첩...“종교인에 대한 박해, 인권 유린 더욱 강화”, 2018년 12월 12일자, <https://www.bbc.com/korean/news-46534793>

3 1967년에서 1970년 9월 까지 진행된 주민재등록사업으로 인해서는 종래의 기독교인들에게 분류번호 42번은 부여하여 일반 감시 및 특별감시대상으로 삼았다.

이어 정식으로 재판을 받아 형기를 언도 받는 교화소 행이 11%, 가장 낮은 처벌 수준인 노동단련형은 3%로 조사됐다. 문제는 종교 활동을 하다 적발되는 경우, 조사과정에서 더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는 것이다. 구금, 투옥 및 심문의 과정에서 입는 피해는 상당하며, 일부는 같은 가해자에게 고통을 받는다. 따라서 이후 구금시설에서 버틸 수 없는 심각한 상태로 입소하였다가 구금시설 내에서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한국미래 이니셔티브(KFI)<sup>4</sup>에 따르면 구금 중에도 종교 행위 및 종교 관련자에 대한 심각한 수준의 인권 침해가 이루어진다. 한 예로, 함경북도 온성군 구치소에 수감된 한 수감자가 기도를 하자, 동료 수감자들은 자신들에게 피해가 올 것이 두려워 집단적으로 그를 폭행한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 코로나 시기 기독교 처형 및 파생 사건 동향

국제 기독교 선교단체 오픈도어스는 2022년 4월 북한에서 몰래 예배를 보던 주민들이 처형되고 가족들이 체포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sup>5</sup> 한국미래이니셔티브(KFI)의 보고서에는 신앙을 이유로 처형된 사례 20

4 한국미래 이니셔티브(KFI)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북한 내 종교 자유 침해 실태>를 통해 273명의 피해자의 증언과 함께 북한 형벌 제도에 여전히 남겨져 있는 76명에 대한 이야기를 공개하였다

5 김일억 선임기자, “오픈도어스 “북한, 몰래 예배를 보던 주민들 처형-가족들 체포””, 2022년 4월7일자, <http://www.s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989>



건<sup>6</sup>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성경 소지 등의 혐의로 기독교인이 처형된 사례가 4건 발견되었으며, 성경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무산 장마당에서 1천여 명의 주민 앞에서 사살되는 처참한 공개처형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증언자들도 있었다. 죄목은 공개처형의 경우, 주민들의 경각심을 불러오기 위해 적시되는데, 많은 경우 한 사람에게 여러 건의 종교박해 행위가 자행되었다고 밝혀졌다.

처벌 대상 행위는 종교 의식을 행하거나 중국에서 종교 활동을 한 행위, 종교 관련 물품을 소지하거나 종교인과 접촉한 혐의 등이다. 박해 피해자들은 나이와 성별을 불문하고 처벌받는다. 여성과 소녀들은 희생자의 60%를 차지한다.<sup>7</sup> 박해 사례 중에는 불과 3살짜리 어린이와 80세 이상의 고령자도 포함돼 있었다. 코로나 시기 북한의 종교 박해 수준

6 KFI의 보고서는 1990년부터 2019년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십 건의 위반 사례를 나열하고 있다. 여기에는 가족에 대한 형벌 36건, 고문 36건, 처형 20건이 포함된다.

7 크리스천투데이, “117명의 신도가 증언한 북한의 기독교인을 향한 박해”, 2022년 8월 17일자, <https://www.christianitytoday.com/news/2022/august/north-korea-persecution-christians-human-rights-report-kr.html>

은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여 달라지지 않았으며, 여전히 높은 수준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 통상적으로 어떻게 발각되는가

종교 행위에 대한 단속은 중앙으로부터 내려오는 계획에 따라 실행된다.<sup>8</sup> 이 과정에서 자의적 체포, 폭행, 뇌물 요구 등의 불법적 행위가 국가기관에 의해 이루어진다. 보안기관의 활동은 비밀리에 이루어지며, 시민 사이에 정보원을 심어 사람들의 동향을 감독하고 있다. 본래 은밀하게 진행되었던 종교 활동은 코로나로 인해 더욱 음지로 숨어들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평시에는 일상적인 색출을 통해 이웃은 물론 가족 간에도 많은 수의 색출과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다.<sup>9</sup> 이러한 적발이 이루어지면, 가족 전체가 일차적으로 성분의 하락을 겪게 된다. 2차적으로는 수용소 수감 대상과 추방 대상으로의 분류가 이루어진다. 3차적으로는 지속적인 감시와 노동이 뒤따른다. 국제 사회는 북한의 종교 박해와 관련된 기관으로 북한의 국가보위성·사회안전성(구 인민보안성)과 중국 공안, 국경경비대 등을 지목했다. 과거에 중국의 최고지도자들은 종교탄압

8 1958년에서 60년대 초까지 진행된 ‘중앙당 집중지도’라는 명목으로 주민들에 대한 성분조사 사업을 계기로 기독교인들에 대한 숙청과 수용소 수감 그리고 기독교인과 그 가족을 반혁명계층으로 분류하여 특수지역에서 거주토론 제한하고 특별감시대상으로 규정하여 추방 사업의 일환으로 산골지역으로의 유배가 이루어진다.

9 1962년 8월 중앙당 4기 4차 전원회의 결정으로 “공산주의 교양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와 1967년 5월 중앙당 전원회의 결정으로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하여”를 통해 북한주민들에게 지하교인과 지하교회 색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했고 학교에서도 부모들의 기독교 활동에 대해 신고하도록 하였다.



의 책임을 지방 관리들이 스스로 저지른 일이라고 떠넘겼다.<sup>10</sup>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의 제7조 1항은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자행되는 살인, 말살, 노예화, 고문, 박해를 반인륜범죄라고 언급한다. 김정은은 직접 이러한 행위를 지시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정권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말살 행위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ICC(국제형사재판소)의 로마규정의 상급자와 지휘자에 대한 처벌의 대상에 해당된다.

## 북한 종교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북한 노동당은 기독교 탄압의 이유로 사상적, 철학적 관점에서만이 아닌 기독교가 바로 미제국주의의 조선침략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지금도 미국은 기독교 선교를 미끼로 북한 사회주의체제를 붕괴시키기 위해 이용하고 있으니 이를 철저히 경계하고 그들의 음흉한 파괴활동을 저지하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11</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도 ‘실리’를 중심으로 종교를 바

라보고 있는 것 같다. 과거에 기독교를 '반미'와만 연결 지어 탄압을 강조했지만, 지원이 필요한 국가적 필요에 의해서 종교적 교류를 지속하고자 하는 양상을 보인다. 종교적 교류는 통상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종교에 대한 사상적 불일치와 시민 사회에 대한 탄압에도, 대외적인 입장을 개방적으로 견지하는 이유이다.

현재까지는 이 가운데 국가 차원의 종교에 대한 개방성이 시민사회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분명 종교를 둘러싼 지역 사회가 변동되면 기독교를 둘러싼 인식적 지형이 변화할 수 있다고 본다. 현 상황에서는 물리적인 장소로서는 존재하지 않는 북한의 교회이지만, 인적이 드문 산이나 개인집 등 어떤 곳이든 비밀스러운 교회가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체포가 눈에 띄게 증가해도 줄어들지 않으며 결코 멈춰지지 않는다. 2000년 이전에 탈북한 응답자 가운데 성경을 본 경험자는 14명에 불과했지만 2000년 이후에는 518명에 달했다.<sup>12</sup> 많은 북한 주민들이 당의 종교 활동에 대한 탄압과 인식 왜곡으로 인해 기독교에 대한 경계심을 가질 것으로 추측되고 있으며, 성경책을 소지할 수도 없고, 종교 활동도 점조식으로만 가능한 현 상황에서도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북한 주민들이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면 분명, 종교는 힘이 있다.

10 오성훈 역, 『중국의 기독교 박해』, 성결과 목회/세계교회의 최근 동향(3), 당시에 수집된 문서가 22,000개의 증언으로 높이가 10피트가 되었다고 하니, 가히 엄청난 수의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해당 문서들은 재판 사본이나 중국 정부의 내부 문서들, 사진을 포함하고 있었다.

11 북한은 6·25전쟁기간 중 기독교 목사와 기독교인들이 미제국주의 침략군의 스파이로 반당 반국가범죄를 자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인덕·전 통일부장관, “북한은 왜 그렇게 혹독하게 기독교를 탄압하는가”, 2019년 1월 28일자, [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bd-81d55c-b178b3d9b2f9-ac04bd80b4e4c5d0ac8c/sendletter-01282019094203.html](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bd-81d55c-b178b3d9b2f9-ac04bd80b4e4c5d0ac8c/sendletter-01282019094203.html)

12 BBC뉴스 코리아, “북한, 종교활동 적발 시 생존 확률 22%... ‘인권침해 심각’”, BBC뉴스 코리아, 2019년 2월 15일자, <https://www.bbc.com/korean/news-47254919>



## ‘접촉’이 허무는 인식의 장벽

북한 주민들이 종교를 경계하는 이유는 사회 내에서 끊임없이 종교에 관련한 범죄자 처벌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교와 관련한 행위를 가장 엄중하게 보는 탓이다. 평양 시내에 선전용으로 봉수교회와 칠골교회를 세워놓고도 당국의 허가 없이 이 교회 주변을 맴돌아봤다는 이유만으로 인민보안서에 끌려가 심한 고문을 당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렇다면 신앙을 가지고 또 확고하게 하는 힘은 무엇일까. 북한 사회 내에서 비밀리에 유통되는 성경 및 종교 전파 행위는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종교에 관한 접촉 방식과 다르게 진행될 것이다.

먼저, 북한 사회 내의 어려운 현실에 기인한다. 자신의 경제적 곤란을 극복하는데 종교가

지원과 지지를 반복하면서 마음이 열리는 경우이다. 처음에는 물리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희생적이고 이타적인 선교사들의 행위가 북한 주민들의 마음에 깃들여 종교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오는 경우를 본다. 탈북 과정이나 강제송환의 위험 속에서 인지된 ‘성경 말씀’이 생각나 종교를 믿게 되었다는 증언도 나타난다.<sup>13</sup> 탈북자들의 대다수는 기독교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 북한을 탈출한다. 일각에서는 탈북자의 90%가 도움을 받았다고 한

13 탈북자인 김요셉의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의 가장 북쪽에 있는 그 마을에서부터 시작하여, 나는 연길까지, 그 다음에는 도문까지 걷고 또 걸었다. 나는 또 다른 교회를 찾을 때까지 여기저기를 헤맸다. 마침내 발견한 두 번째 교회 벽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치 누군가가 나에게 직접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네가 얼마나 지치고 절망적인지 안단다.” 김요셉, “북한을 탈출하다”, 크리스천 투데이, 2022년 6월 6일자, <https://www.christianitytoday.com/ct/2022/june-web-only/how-i-escaped-north-korea-kr.html>



# 북한의 기독교 박해와 한국교회의 사명

정베드로 목사 (북한정의연대 대표)

오늘날 북한인권문제는 사상과 표현 그리고 종교의 자유문제라고 볼 수 있다. 북한에서 기독교인이 겪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다. 북한 인권피해 유형 가운데 가장 가혹하고 끔찍한 침해를 받는 부류가 기독교인들이다. 2014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북한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신앙의 자유문제를 강조하면서 북한의 초기 완전통제구역 피해자들의 40~60%는 기독교인들이었다는 보고자료를 인용하였다. COI는 북한이 최고지도자인 수령에 대한 절대복종체제 확립을 위해 철저히 정보를 독점하고, 주민들에게 어릴 때부터 세뇌작업을 하고, 사생활 감시 등을 통하여 독자적인 사상, 양심, 표현과 종교의 자유를 엄금하고, 특히 기독교 탄압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성분제도에 의해 태어날 때부터 주거, 직업, 학업, 배급, 결혼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고, 이러한 차별제도에 의해 체제를 강화함으로써 심각한 각종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주민들을 통제하는 가장 큰 기제는 주체사상에 의한 사상통제이다. 북한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사상이론을 통해 독재체습체제를 3대째 유지하고 있다. 지금의 북한의 주체사상의 틀을 갖춘 것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이다. 주체사상은 한마디로 수령론이라고 할 수 있다. 김일성 수령은 무오류성을 지닌 생명체의 뇌수이며, 인민대중은 수령에 충성함으로써 생명을 부여받을 수 있고, 당은 생명체의 신경조직이라는 이른바 수령과 당과 인민대중의



〈마이클 커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이 지난 2014년 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인권최종보고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다. 자신이 위기에 처하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민 도움의 손길에 감동하는 것이다. 이러한 도움과 사랑이 북한 주민들에게 끊임없이 노출되어야 하고, 특히 ‘사람’을 통해 진정성이 드러나야 한다.

## 새롭고도 바른 가치를 심어주자

이러한 물리적 지원을 기반으로 한 선교 목적의 지원 외에 다른 부분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바로 그들의 인식을 깨이게 하는데 믿음의 내용과 성경 말씀이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다. 한 증언자에 따르면 북한 사회에서는 들을 수 없는 가치와 개념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 점이 매우 크다고 한다. 그는 “그들은 원수를 사랑할 정도로 사랑하려고 말합니다...(중략) 그들을 통해 나는 그들의 믿음이 북한에서 들은 것과 완전히 반대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밝히고 있다.<sup>14</sup> 북한 사회 내에서는 경제난으로 인해 정서적 충족이 힘들고, 모든 언론 및 정치교양 시간을 통해 정치적 이데올로기 주입, 반미 사상, 한국에 대한 적대적 입장을 주입하는 일방적인 소통만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국가 차원에서 주창하는 내용 또한 진실과 다른 왜곡이 있는 것이다. 외부 정보 유입으로 외부 세계를 간접적으로 접해볼 수 있

는 현 상황에서는 인식 상에 자연스러운 ‘비교군’이 형성되어 있다. 북한 주민들은 새로운 사상과 가치를 알고 싶을 것이다. 2018년 평안북도 국가안전보위부 유치장에 38세 남성이 구금됐다. 교도소에서 교도관이 감방을 들여다보더니 “왜 국가가 금지한 일을 했느냐”고 물었다. 성경을 소지한 죄를 지은 죄수는 “그저 직접 알고 싶었을 뿐”이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이러한 호기심을 기반으로 북한 사회 내부가 진실 되지 못하다는 사실 위에 위선을 인식시키는 바른 가치가 더해진다면 그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열리게 하는데 충분한 것이다. 🐟

14 JAYSON CASPER, “117명의 신도가 증언한 북한의 기독교인을 향한 박해”, 2022년 8월 17일자, 크리스천투데이, <https://www.christianitytoday.com/news/2022/august/north-korea-persecution-christians-human-rights-report-kr.html>



삼위일체를 형성하여 영원한 생명을 이어받는다  
는 종교적 체계를 갖추었다.

북한주민들을 통제하는 또 하나의 통제는 공포  
정치의 핵심으로 일컬어지는, 관리소나 혁명화  
구역이라고도 불리는 정치범수용소를 운영하  
는 것이다. 김일성 독재체제 구축시기인 1950-  
1960년대에는 반대세력을 반당, 반혁명분자, 종  
파주의로 몰아 평안남도 북창군 득장 탄광지역  
같은 수용소로 보냈다. 이후 1970년까지 주민  
성분조사사업을 통해 적대계층에 속한 1만 5천  
여 세대 약 7만여 명을 산간벽지로 추방했는데  
그 추방지역 중 상당 영역이 정치범수용소로 운  
영되었다.

북한정권은 1958년까지 북한의 기독교인들을  
완전히 처단하고자 정책적으로 탄압하고 숙청  
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기는지 공산주의가  
이기는지를 보여주겠다는 말과 함께 일부 기독  
교인들을 관리소(정치범수용소)에 수감하였다.  
1967년에도 김일성은 교시를 내려 기독교 신앙  
의 행위를 미신행위와 동일시하는 지시를 내렸  
고 지속적으로 지하교인들을 색출하여 정치범  
수용소로 보냈다.  
1970년-1980년대는 김일성 우상화와 김정일  
의 후계체제 구축의 시기로서 세습체제에 비판  
적이거나 잠재적 위협세력이었던 기독교인들,  
지식인들, 북송재일교포, 남한출신자와 납북자,  
월북자, 외교관과 유학생 등을 수용소에 수감하  
였다. 북한의 지하교인들은 신앙을 지키다가 체  
포되어 정치범으로 낙인이 찍혀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지거나 비밀처형을 당했다.

정치범 수용소는 한번 들어가면 죽어서도 나올  
수 없는 곳이며 정치범으로 지목된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연좌제로 같이 잡혀 들어  
가는 곳이다. 지하교인들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  
려가면 그때부터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으며 갖  
은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해야 하며 굶주림으로  
인해 뱀, 쥐 그리고 각종 산나물을 닥치는 대로  
먹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인간 생지옥을 경험한  
다. 특히 기독교인들이 특별취급대상으로 분류  
되어 별도로 수감되고, 생체실험과 화학실험 대  
상, 그리고 특수훈련 교보재로 사용되고 있다는  
증언도 있다.

북한은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다고 대외적  
으로 거짓선전을 하며 해외에 거주하는 기독교  
성도와 목회자들을 포섭하고 입북을 유인하였  
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위장하였다. 세습  
으로 정권을 이어받은 김정일은 1987년 김일성  
종합대학에 종교학부를 개설하여 기독교, 불교,  
천주교 학과를 만들고 당원으로서 성분이 좋은  
학생들을 모집하였다. 신학교의 개설 목적은 대  
외적으로 북한의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좋은 이  
미지를 알림과 동시에 대외 관계를 용이하게 하  
고 해외 기독교 기관들과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  
기 위함이었다. 이 모든 종교선전행위의 일꾼들  
은 김일성대학 종교학과를 졸업한 북한의 보위  
부나 통일선전부 소속된 자들이다. 그러나 실제  
로 기독교 학부의 학생들이 졸업 후에 주로 하는  
일은 북한 내 기독교인 색출과 수사 업무이고 심  
지어 지하교인으로 가장하여 기독교인을 색출  
하여 관리소나 수용소로 보내는 특수한 업무를

감당하기도 한다.

공산화 이전 선조들의 기독  
교 신앙을 이어온 신자를 의  
미하는 북한의 그루터기 신  
자 중에는 주민 성분조사 사  
업에 의해 성분이 차별화되  
었지만 북한당국의 감시를  
피해 여전히 마음속으로 신  
앙을 간직하거나 유지한 이  
들이 있었다. 이러한 그루터  
기 교인들 중 많은 이들이 순

교를 당하거나 수용소로 보내지거나 깊은 산속  
의 교화소로 유배를 당했다. 1972년 김일성의  
대사면에 의해 석방이 된 때도 있었으나, 정치범  
수용소나 교화소에 수감된 지하교인들은 거의  
모두가 끔찍한 박해를 받고 심지어 생체실험의  
대상이 되어 죽어갔다.

북한에 그루터기 신자와 지하교인들이 살아있  
다고 구체적으로 확인된 계기는 1990년대 북한  
의 고난의 행군시기에 탈북한 탈북자들에 의해  
서이다. 당시 3백여만 명이 아사하는 가운데 약  
30만 명 이상이 탈북하였다고 추정된다. 이 기  
간에 중국에 거주하며 선교활동을 하는 한국선  
교사들과 활동가들이 중국공안의 감시 속에서  
도 중국 조선족교회와 함께 탈북동포들을 돌보  
는 선교활동을 펼쳤다. 탈북자들 중에는 북한의  
그루터기 신자의 후손들이 있었고, 초기 조선에  
전파된 복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후손들과 신앙  
인들이 발견되었다. 이 시기에 중국 체류 탈북자  
들의 80% 이상이 한국선교사와 목사들에 의해

북한 정치범수용소 수감 인원 현황				
관리소	지역	2020년(3월)	2021년(7월)	2022년(6월)
14호 관리소	평안남도 개천	43,000	43,000	36,800
15호 관리소	함경남도 요덕	55,000	56,800	42,900
16호 관리소	함경북도 화성	24,000	24,000	28,700
17호 관리소	평안남도 개천	21,000	20,800	41,200
18호 관리소	평안남도 북창	26,000	25,800	20,200
25호 관리소	함경남도 청진	40,000	41,000	36,000
송호리 관리소	황해북도 송호		21,000	0
평산 관리소	황해북도 평산		불명	불명
합계		209,000	232,400	205,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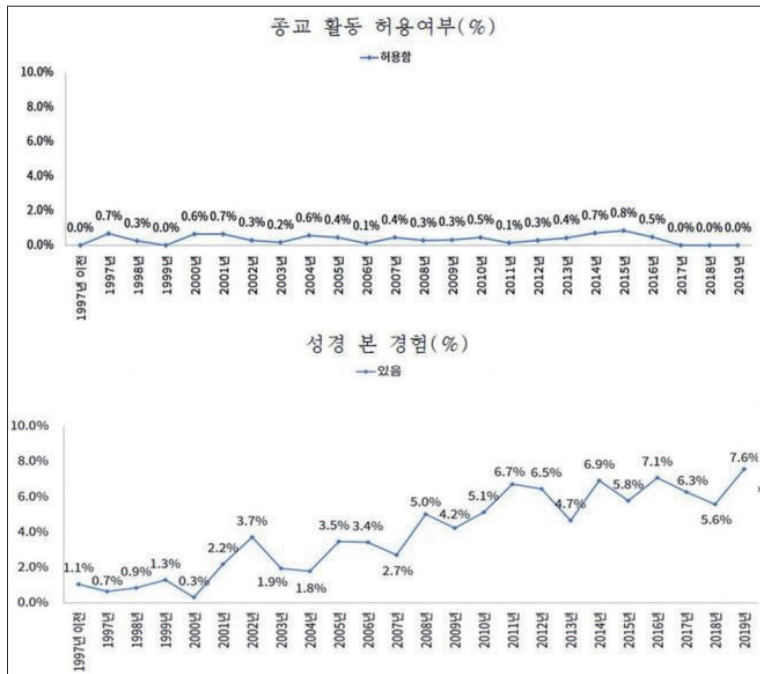
〈북한전문매체 데일리NK는 내부소식통을 인용 22년 6월 기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 수가 20만여 명 이상이라고 보도하였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신규 수감자가 급증하였으나 열악한 환경 등으로 인한 사망자도 다수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표=데일리NK)〉

서 복음을 접하고 신앙을 가졌다.

그러나 무수한 탈북자가 중국 공안에 의해 체포  
되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었다. 중국 공안은 탈  
북자를 심문하는 과정에서 기독교인으로 밝혀  
지면 조서에 기록하고, 이 조서와 함께 그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였다. 이렇게 강제 복송된  
탈북자들이 북한 보위부의 조사에 의해 기독교  
인으로 분류되면, 다른 수감자들과 격리되어 심  
문받고 법적 절차나 재판이 없이 바로 처형당하  
기도 한다.

탈북자들이 복송된 후 받는 첫 조사는 북한 국  
가안전 보위부가 실시하는데 그들이 첫 번째로  
하는 질문이 바로 중국에서 교회를 갔거나 한국  
선교사나 목사를 만난 적이 있는지 여부이다. 강  
제 송환 경험이 있는 탈북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 조사과정에서 그와 같은 질문에 하나라도 시  
인하게 되면 더욱 극심한 조사를 받게 되며 기독

1 “북한 정치범수용소 수감 인원 지난해比 2만여 명 감소”, 데일리NK, 22년 8월 26일 <<https://www.dailynk.com/20220826-5/>>



〈북한인권정보센터가 탈북민 14,05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99.6%인 13,993명(99.6%)이 “북한에서는 종교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고 답했다. 반면 북한생활 당시 성경을 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 비율은 4.0%(575명)이었으며 그 중 대부분(559명)이 2000년대 이후 탈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에서의 종교 활동은 여전히 허용되지 않고 있지만 2000년대 이후 북한 내 성경 유통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프=북한종교자유백서 2020)〉

교 행위가 발각될 경우 다른 죄수들과 격리되어 비밀 처형을 당하거나 교화소나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다. 북한 보위부의 조사방식은 먼저 훈련된 계호원이라는 전문 조사원을 활용하고, 극심한 다양한 고문을 통해 지하교인들의 명단과 활동 그리고 장소를 실토하게 한 후에 이들을 비밀리에 격리하거나 처형하는 것이다. 필자는 강제복송되어 장기간의 처벌을 받고 간신히 살아나온 후에도 몰래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을 지키고 있는 신자들을 북한의 신(新)지하교인이라고 부른다. 김정일은 2005년도에 북한에서 신지하교회가 확산되고 기독교 정보가 북한으로 유입되자 탈북자들을 막고 기독교 사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공개처형과 정치범관리소를 늘리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기독교를 접한 북한 주민들은 예수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체험으로 인해 주체사상의 허구와 김일성 우상 독제체제를 과감히 거부하고 신앙을 지키고 순교하였다. 오늘날도 북한 신지하교인들은 북한당국의 박해가 극심함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친인척들에게 기독교 신앙과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북한은 대외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선전하지만 지금도 지하교인들이 체포되고 비밀 처형과 공개처형을 당하고 있으며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져 박해를 당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에서도 북한주민들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판도 없이 하룻밤 사이에 끌려가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거나 처형되고 있다. 단지 탈북하여 중국에서 교회를 나갔다는 이유로도 처형대상이 되고, 중국에서부터 임신한 임산부의 아이를 강제 낙태시키고, 살아있는 영아조차도 군화발로 밟아 죽이는 일도 빈번하게 자행되고 있다. 현재도 탈북은 계속되고 있고 신(新)지하교인들의 활동은 중단되지 않았다. 그래서 북한당국과 보위부는 북한 내부의 은밀

한 종교 활동을 막기 위해서 위장한 가짜 기도회를 열거나 가짜 신도를 지하교회에 잠입시켜 기독교인을 적발하고 있다. 몇몇 국제 기독교 단체들은 북한의 표현과 사상 및 종교의 자유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유엔과 관련 국제기구에 보고하였다. 북한이 기독교인에게 국가전복죄, 간첩죄 등을 적용하여 적법한 절차 없이 심문, 처형하고 불법적인 구금시설들로 보내어 집단적으로 폐쇄된 공간에 가두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리하여 김일성 시기로부터 기독교들을 포함하여 수감된 집단 전체가 수용소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보고 향후 이 문제가 현재 국제법에서 규정하는 집단살해죄(Genocide)또는 유사한 국제범죄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연구와 조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북한정권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기독교의 전체 조직을 와해시키고, 집단적 멸절시도를 하고 있다. 특히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북한 체제변화시 범죄은폐를 위해서 정치범수용소와 같은 폐쇄지역에 구금되어 있는 수감자들을 일시에 학살을 자행할 수도 있다는 점이라고 ‘완전통제구역’ 경비대 출신 안명철 씨나 북한 ‘혁명화 구역’ 요덕수용소 출신 김영순 씨 등 북한 정치범수용소 출신 탈북자들은 증언한다.

한국교회는 북한의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일어나 기도해야 한다. 북한의 신앙의 자유문제의 심각성을 바로 알고 북한을 바로 이해할 때만이 올바른 북한선교를 할 수 있다. 북한이 올바른 체제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의 인권 문제가 개선되고 신앙의 자유가 허용되도록 기

도하고 행동으로 일어나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당국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사회의 권고에 따라 북한 종교인들의 인권침해를 중지하고 헌법에 보장된 종교 활동을 즉각 허용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가 북한 인권 개선과 신앙의 자유를 위해 기도하면 북한의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인권이 회복되고 북한선교의 문이 온전하게 열릴 수 있다. 북한의 신앙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우리의 행동은 초기 북한에 떨어진 복음의 씨앗에 의해 부흥을 경험한 한국교회가 그 사랑의 빛을 북한동포들에게 갚을 수 있는 섬김이다. 박해받는 북한사람들을 기억하는 것은 박해받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가 강도만난 자의 이웃인지’에 대한 물음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북한동포의 자유와 구원을 위해서 탈북민을 빼어내셔서 한반도의 복음적 통일을 위한 국제사회의 기초를 닦아 주셨다. 이제 북한선교는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과 공의에 편에서 이뤄져야 하고 갇힌 자와 박해받는 자들의 편에서 먼저 생각해야 한다(히13:3). 오직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므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므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기를 바라신다(사5:16). 



#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상)

송혜연 목사 (하나로드림교회)

북한의 지하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그 존재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거나 거짓으로 치부하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서도 종종 들리곤 합니다. 구체적인 조사나 통계 자료가 있을 수가 없고 북한의 기독교 박해가 워낙 극심하다보니 이런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있으리라 생각하기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열악한 북한의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송혜연 목사님(하나로드림교회)은 여러 차례의 강제 북송 가운데서도 기도와 예배의 생활을 쉬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따라 복음을 전했던 자신의 귀한 경험을 간증해오셨습니다. 이번 북한개발소식에서는 송혜연 목사님과의 만남을 통해 목사님께서 경험하신 북한에서의 신앙, 그리고 북한을 향한 비전과 소망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을 2회에 걸쳐 게재합니다. 이 소중한 메시지가 독자님께도 잘 전달되길 바랍니다. (편집자 주)

##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북한이나 중국이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성경통독반에 있을 때 매일 밤마다 철야기도를 했어요. 저도 거의 2년을 철야에 참여했어요. 저희에게 복음을 전하신 에스더 사모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에 보내서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애굽의 총리를 만드시고 민

족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 저도 북한 감옥으로 보내시고 저를 순교의 제물로 받으셔서 북한이 회복될 수만 있다면 받으시옵소서” 그 기도에서 저희는 감히 “아멘” 을 붙이지 못했어요. 상상만 해도 살이 떨리는데 어떻게 그런 기도에서 아멘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 영성, 그런 기도에서 담긴 마음을 몰랐어요. 저도 철야기도에 참여는 했지만 그저 사모님께서 철야기도를 하시고 돌아오시면 눈빛부터 다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이 보이니까 저도 그런 은혜를 받고 싶다는 단순한 동기였거든요. 그때 사모님께서 하셨던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면 할 수 있는 기도인 것 같아요.

그 날도 철야기도를 하는 중에 중국 공안이 그 자리를 덮쳤고, 체포되어 북송을 당했어요. 사모님께서 북한 보위부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찬양을 멈추지 않으셨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순교하셨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사모님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 땅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행하신다고 믿어요. 아직 사모님의 모범에는 미치지 못하고 각오는 부족하지만, 이제 철이 들어서 “나도 만약에 하나님이 순교의 제물로 원하시면 나도 그렇게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성경통독반에서 그런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1년만 훈련 받아서는 부족해요. 우리

는 보통 5년 정도 받았어요. 기도와 말씀 훈련을 받고 성숙된 사람이어야 북송 또는 자발적으로 북한에 돌아가게 되었을 때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해석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북한이나 중국이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처음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성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북송되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먼저 파송되어 북한에 들어가 있었던 저와 동생, 그리고 어머니, 때로는 함께 들어갔던 이들과 모여 예배를 드렸어요. 가장 많이 예배를 함께 한 사람은 제 동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주로 밖에서 망을 보시거나, 옆집 할머니가 항상 감시를 하셔서 그 집에 가시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본인이 시무하는 하나로드림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송혜연 목사 (사진=하나로드림교회)〉

혼자서 개척 예배했을 때에도 나 혼자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면 꼭 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어느 비 오는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담당 형사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오늘은 북한 분들이 한 명도 안 계시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형사님께서 예배드리러 오게 하신 것이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놀라면서 자기가 어릴 때는 교회 다녔었다고 하세요. 그래서 형사님을 앉혀놓고 제가 북한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했어요. 형사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렇게 전 제가 만난 형사님들을 다 전도했어요.

북한에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데 진짜 가슴이 아팠어요. 이 컴컴한 땅, 암흑에 땅에 그래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축복하라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영혼들, 우리 동족들을 향한 그분의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제가 사역하다가 그만 두고 싶고 사명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북한에서 기도했던, 가슴 아파하며 동족을 보며 눈물 흘렸던 것을 잊지 말라고요. 지금도 예전의 저와 똑같은 우리 북한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외롭고 힘들겠지요. 함께 드리는 기도가 그들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불쌍한 것이죠.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도 잘 먹고 잘 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모르면 불쌍한 사람에 불과해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저 자기 재산 모

으다가 죽는 거예요.

## 북한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셨습니다.

한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일부러 북한으로 돌려보내셔서 그 아픔을 보게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저는 북한에서도 잘 사는 편이었고 대학도 나왔어요. 중국에서도 팔려간 것이 아니라 귀한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교회에서 잘 훈련받았어요. 큰 고생 없이 살아온 제가 성도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좀 더 훈련받았다고 교만해지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북송을 경험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국경을 넘자마자 달라지는 공기와 욕설들, 심성이 험악한 수감자들 사이에서 고통 받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출소하고 고향에 돌아가서는 그 땅의 영혼들의 아픔을 느끼게 하셨어요. 하루는 어느 마을에 도착하니 연기가 나는 집이 없는 거예요. 저녁이면 연기가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마을의 한 산에서 허리가 거의 90도 꺾어진 할머니가 바싹 마른 나뭇가지를 붙잡고 내려오는데 그 모습을 볼 때 베드로의 “쿠오바디스” 일화가 생각났어요. ‘베드로가 도망쳐 나온 그곳에 예수님께서 다시 걸어가시는 그 일이 바로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구나, 예수님께서 이 할머니와 같이 쇠한 영혼들을 위해 이곳에 임하시는구나’ 하는 감동이 강하게 들어서 거기서 무릎을 꿇고 펄펄 울었어요.

하루는 탈북하기 전 살던 지역을 돌며 기도하

고 가야겠다는 마음이 있어 기도하면서 길을 걷다가 바닷가를 지나가게 되었어요. 썰물에 갯벌이 드러나니까 어른이고 어린아이고 할머니고 할 것 없이 모두 다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갯벌을 파헤치는데 바닷가가 새까맣게 보일 정도로 사람들이 붙어있었어요. 특히 갯통을 든 어린 아이가 새까맣게 되어가지고 갯벌을 어렵게 헤치고 나오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 모습을 보는데 그 안에서 어떤 갈급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부어지면서 펄펄 울었어요. 저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 땅을 걸으며 영혼들을 볼 때 어떤 사명 의식을 받는 거예요.

북한에서 직접적인 일대일 전도는 잘 못했어요. 대신 간접 전도를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 선교사님께서 돈을 부쳐주시면 그 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왔어요. 특히 식사 때인데 굴뚝에 연기가 나오지 않는 집들을 찾아가서 관계를 맺고 도움을 주었어요. 그 중에 기억나는 집이 부모를 잃고 형제 3명이서만 사는 집이었어요. 부모님은 모두 굶어 죽고 첫째가 시장에서 찹쌀로 모찌를 만들어서 동생들을 부양했어요. 그 큰 애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을 많이 도와줬어요. 그 집 동생들을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먹이기도 했어요. 하루는 그 첫째가 저한테 정말 죽고 싶다고,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나한테 두 동생을 맡기고 이렇게 죽어버렸는지 모르겠다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서 펄펄 우는 거예요. 그 아이

에게 소망의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데 직접적으로는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친구를 데리고 “하늘에 별을 한번 봐라 하늘에서 누군가가 널 돕고 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열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도와주었죠. 그러다가 제가 다시 탈북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전했어요. 북한에는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을 구제하면서 조심스럽게 복음을 간접적으로 전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구제하는 것이 우리의 십일조라고 생각했어요.

보위지도원을 전도했던 기억도 있어요. 제가 북송 등으로 여러 번 감옥을 가다보니 그분과도 여러 번 마주쳤어요. 제가 보통 수감자들과는 다르게 먹을 것 생기면 다른 수감자들과 나눠 먹고 그러니까 그분도 평소에 저를 주목해서 봤었나봐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지도원이 저에게 “야 너 하나님의 사도야?” 그러더라고요. 어디서 그런 용어를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지도원이 진담인지 농담인지 어떤 의도로 그런 말을 꺼냈는지 몰라서 시치미를 댔죠. 그런데 전에 감옥에 있었을 때 제가 출소하고 나서 같이 있던 수감자가 그 친구 하나님 믿는다고 했다는 거예요. 꿈쩍없이 들켰죠.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그 지도원은 저를 해코지할 마음은 아니었어요. 대신 저를 통해서 돈을 벌기를 원했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그 지도원이 선교사님으로부터 오는 돈을 중간에서 전달하고 수수료를 떼어가는 전달책 역할을 했어요. 물론 돈을 보내주시는 분






〈북한 교화소 삽화 (사진=휴먼라이츠워치)〉

이 선교사라고는 말 못하고 중국에서 만난 사업하는 미국 사람이라고 설명했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이야기를 했어요. 북한에서는 미국 사람은 대부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우리를 항상 도와주는 선한 사업가가 있는데 지금도 돕고 싶어서 우리 연락을 기다릴거다” 라고 설명했죠. 그렇게 관계를 맺으니 이제 그 사람과 저는 일종의 협약을 맺은 셈이 되었어요. 그 사람은 제가 기독교인인 것을 알고, 그러면서 자신도 저를 통해 돈을 벌었으니 서로 약점이 있는 것이죠. 이후에는 좀 더 풀어놓고 그 사람을 전도했어요. 아직 어릴 때라 신앙에 대해 깊이 있게 설명은 못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알려주었어요.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 십계명을

써주고 읽으라고 건네주기도 했어요. 그 사람 역시 하나님 이야기가 궁금했는지 종종 저를 불러서 외딴 곳으로 데리고 나가서는 기독교에 대해서, 또 제가 이야기해주었던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했어요. 이분을 나중에 통일이 되면 꼭 찾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꼭 듣고 싶어요. 북한에 있으면서 북한 안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는 노력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기도 했어요. 출소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더니 제 대학 친구들이 사회에서 꽤 유망한 위치에 있었어요. 북한은 대학 나온 여성이 극히 적기도 하고 원래 성분도 좋은 친구들이었으니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바깥 이야기를 참 궁금해하고 한국 드라마 같은 것도 좋

아했어요. 북한에서 감옥에 있다가 출소할 때는 바깥세상 이야기나 감옥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고 서약을 해요. 그렇지만 친구들은 바깥 이야기가 궁금하니까 저와 어울리곤 했어요. 당시에는 드라마 ‘야인시대’가 북한에서 한창 인기가 있었어요. 친구가 보러 오라고 해서 갔더니 6~7명이나 모여 있더라고요. 그렇게 한참동안 함께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화면이 썩 바뀌더니 예수님에 대한 설교말씀이 한 3~40초가량 나와요. 어떤 목사님 같은 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화면을 보고 다들 놀라서 “저게 뭐야, 저게 뭐야” 그랬어요.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그 설교 말씀이 무슨 이야기인지 너무 잘 아니까요. 친구들 중에는 처음 듣는 메시지에 충격을 받고 “다시 돌려봐

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반응도 있었고 “야 이 시디 버려라 이거 정치적으로 걸린다” 라는 반응도 있었어요. 당시 여러 미디어들이 막 들어가던 때였는데 그 속에 조금씩 복음의 메시지를 담아서 전달하려는 많은 노력이 있었던 것이죠. 한국에서 보면 그것이 무슨 의미 있는 선교활동인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북한의 누군가에게는 생전 처음 듣는 복음의 메시지일 수 있어요. 누군가는 지금도 여러 방법으로 그 땅에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밀수꾼으로 배달하고 하는 역할을 음지에서 하고 있을 거예요.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은 북한 사역 단체들이 사라졌는데 참 안타깝워요. 이러한 노력들이 계속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 이끄심

1화 - Αρχή 아르케 : 시작은 어머니로부터 (1)

김 서 윤 전도사

나는 함경남도의 한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부모님은 출신 성분이 좋으셨고 당원이셨고 흔히 말하는 충성분자였다. 아버지는 DMZ 군사분계선 최전방에서 특수부대원으로 10년간 군 복무를 하셨고, 제대 후에는 고향으로 돌아와 동약관리소에서 간부로 일하셨다. 어머니도 8년간 성실하게 군 복무를 하셨고, 제대 후 친지들의 중매로 아버지와 결혼하셨다.

나는 양가의 관심 속에서 2남 2녀 중 장녀로 태어났다. 어머니는 대를 이을 남아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시집살이를 많이 하셨다. 어린 기억에 친할머니 댁은 큰 기와집이었고 할머니께서도 항상 고풍스럽게 한복을 차려입고 지내셨다. 소위 말하는 뼈대 있는 집안이었다. 그러다보니 대를 이을 손주의 존재가 중요했고, 아들을 낳지 못했던 어머니를 향한 타박도 적지 않았던 것 같다. 우리 가족은 결국 아들을 입양했다. 그 친구가 우리 집 셋째이다. 나는 어린 나이에 집안 돌아가는 사정

을 잘 알지는 못했지만 셋째의 생김새가 우리와는 좀 다르다는 생각은 했었다. 그래도 우리는 형제자매로서 서로 차별하지 않고 한 가족으로 잘 지냈다. 그리고 마침내 어머니는 막내 남동생을 출산하셨다. 내가 9살 쯤 되었을 때였다.

그 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평화로운 저녁 시간이었다. 갑자기 여러 명의 장정들이 우리 집을 찾아와서는 눈 깜짝할 사이에 온 집안을 헤집어놓았다. 어머니는 바깥 불일을 보시다가 길에서 붙잡히셨다고 했다. 너무나도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나는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하기조차 어려웠다. 당시 어머니는 출산 후 몸조리를 막 끝내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였다.

나는 어머니의 행방에 대해 몹시도 궁금했다. 그렇지만 우리 가족, 또 친척들 모두 어머니에 대한 언급을 쉬쉬하는 것이 느껴졌다.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궁금한 어머니의 행방이 입 밖으로 꺼내서는 안 되는 그 무

연가가 되어버렸다. 어머니 이야기만 하면 아버지도 침묵하시고 가족 분위기가 싸해졌다. 어떤 친척들은 뒤에서 우리 어머니는 끝장났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했다. 어느새 부턴가 나의 하루 일과는 “엄마 기다리기”가 되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엄마가 오실까 하는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잠자리에 들면서도 작은 문소리에도 혹시 어머니께서 돌아오신 것인가 하고 벌떡 일어났다.

공교롭게도 어머니의 부재 속에서 우리는 고난의 행군이라는 최악의 기근과 마주하게 되었다. 그 무시무시한 굶주림은 우리 가족을 극한의 상황으로 몰고 갔다. 나라의 경제가 무너지는 와중에도 아버지는 꼬박꼬박 일터로 출근하셨지만, 제대로 된 배급이 나오지 않으니 집에 남아있는 우리는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날이 점점 늘어났다.

가장 딱한 것은 아직은 너무 어린, 젖을 먹어야 할 시기에 엄마를 빼앗긴 막둥이였다. 먹일 젖도 없고, 젖을 담아 먹일 젖병도 없었다. 아버지는 강냉이 국수를 폭 삶아서 죽으로 만들어 아이에게 숟가락으로 떠먹여보기도 했지만 너무 투박하고 거친 그 음식을 아이는 제대로 삼키지 못하고 울었다.

일주일을 굶으니 문자 그대로 하늘이 노랗게 보였다. 기운이 없어 벽에 몸을 기대고 있는데 막둥이가 배고프다고 막 울면서 나한테 칭얼댔다. 그래도 어머니 없는 동안에는 장녀로서 동생들을 돌보아야겠다는 생각에 엎어서 달래기도 하고 물이라도 먹여보기도 하고 했지만 일주일정도 지나니까 그럴 기운이 남아

있지 않았다. 막내가 보채는데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지칠대로 지친 나는 칭얼대는 동생을 앉아주기는 커녕 외면했다. 그리고 울다 지친 아이는 쓰러져 잠들었다. 그렇게 쓰러진 아이가 잠들었다고 착각하고 담요를 덮어주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그날따라 막내는 한번 울고 난 이후로는 쪽잠을 잤다. 밤이 되어 퇴근하고 들어오신 아버지는 오늘 하루도 잘 버텼는지 물으셨다. 나는 아버지에게 막내가 너무 오래 자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다. 아버지는 화들짝 놀라시면서 막내가 덮고 있던 이불을 걷으셨다. 그리고는 아이의 상태를 이리 저리 확인하시더니 이내 한숨을 푹 쉬셨다. 나는 설마 하는 생각에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아버지는 담요 짚로 아이를 둘둘 싸시더니 곧장 밖으로 나가셨다. 나는 동생이 죽었다는 생각은 못하고 당연히 병원에 데려간 것이라고 생각했다. 현실을 받아드릴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밤늦게 들어오신 아버지의 손에는 아이가 들려있지 않았다. 그렇게 막내는 이 세상 공기를 얼마 맛보지도 못하고, 어머니의 부재 속에서 고생하다가 깊은 땅 속에 묻힌 것이다. 그날따라 나에게 웬일로 크게 울며 칭얼대던 것이 막내에게는 마지막 안간힘이었을까? 나는 그렇게 남동생을 죽였다는 죄책감에 꽤 오랜시간 동안 괴로워하고 힘들었었다. 그 생각만 하면 나는 그저 죄인이라는 생각밖에 안든다.

동생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우리의 굶주림은 계속되었다. 우리를 보살필 마땅한 수가 없었던 아버지는 우리를 외가댁으로 보내셨다.





같은 방향으로 가시는 분에게 맡겨서 아이들만 기차를 태워 보냈는데 다행히도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외가댁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다. 외가댁에 도착한 우리를 보고 외할머니는 깜짝 놀라셨다. 미리 연락도 드리지 않고 아이들만 덩그러니 보내졌으니 누군들 당연히 놀랐을 것이다. 나라 전체가 굶주림으로 신음하는 가운데 외가댁 사정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였으나 노부부만 사시는 집인지라 적은 식량이나마 조금씩 아껴가며 그래도 살아가고 계셨다. 그런데 뱃속에 거지가 사는 것 같은 손주 셋이 찾아왔으니 얼마 지나지 않아 외할아버지네 식량은 거덜나버렸다. 그래도 외할머니께서는 손주들 먹이시겠다고 산에서 아직 설 여문 감자를 캐다가 먹이시는 등 갖은 애를 다 쓰셨다. 그렇게 여름을 그 집에서 보냈다.

이런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내 안에는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점점 커져갔다. 어떻게 우리를 내버려두고 사라질 수 있는지? 어머니만 계셨다면 막내도 죽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토록 혹독하게 벌을 주시는 걸까? 그리고 어머니의 도움이 가장 필요할 때 우리를 내버려두었는지 이

해할 수 없었다. 그러면서도 어머니께서 혹시 돌아가신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고, 그런 것이 아니라면 하루 빨리 돌아오시면 좋겠다고 밤마다 달님에게 간절히 빌었다.

그런데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 이른 아침, 어머니께서 마침내 집으로 돌아오신 것이다. 오랫동안 바래왔던 어머니와의 상봉이었지만 아쉽게도 그 순간은 기쁨과 반가움보다 씁쓸하고 서먹서먹한 시간이었다. 어머니께서는 오시자마자 막내를 찾으셨고, 막내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들으시고는 큰 충격을 받으셨기 때문이다. 오열하는 어머니를 앞에 두고 반갑게 달려가 안기지도 못하고 어리둥절한 가운데 다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더 나이를 먹고 나서야 그 당시 어머니께서 갑작스럽게 잡혀가신 이유를 알게 되었다. 그 이유는 공교롭게도 외삼촌이 건네준 성경책 때문이었다. 외삼촌은 중국을 왕래하시면서 선교사 또는 기독교인과 관계가 있었던 모양이다. 외삼촌은 그분을 통해서 외부로부터 달러를 지원받고 성경책도 받아오셨다. 그렇게 받은 지원금과 성경책을 어머니에게도 건넨 것이다. 사실 고난의 행군은 어머니가 잡혀가시기 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어린 나이의 나는 잘 몰랐지만 주변에는 이미 굶는 사람이 나오고 있었다. 그렇지만 어머니께서 지원 받으신 달러가 있었기에 우리 집은 먹는 걱정 없이 지냈던 것이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외삼촌은 외숙모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그날도 외삼촌과 크게 다투던 외숙모는 외삼촌이 수상한 물건을 가지고

있다고 당국에 고발해버리고 말았다. 외삼촌은 붙잡혀 심문을 받았고 가택 수색을 당했다. 그리고 결국 가지고 있던 성경책을 발각당하고 말았다. 그리고 그 수상한 책이 우리 어머니에게도 전달되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어머니도 붙잡혀 가신 것이다.

어머니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어머니는 성경책을 돌돌 싸매어서 외진 곳 벽 귀퉁이 틈 사이에 꼭꼭 숨겨 놓으셨는데 그 덕분인지 철저한 가택수색에도 발각당하지 않으셨다. 그렇지만 보위부의 수사와 고문은 지독했다. 성경책의 실물이 발견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에게 혐의를 인정하라고 거의 2년에 가까운 기간을 괴롭히고 고문했다. 만약 어머니께서 숨겨놓으셨던 그 책이 발견되었더라면 본인 뿐 아니라 아버지를 포함한 가족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을 것이다. 아니 고문에 못 이겨 없는 죄라도 억

지로 자백했다면, 혹은 그 책의 내용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어서 유도 질문에 걸려들었다면 어머니는 꿈쩍없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시거나 사형당하셨을 것이고 우리 가족도 연좌제에서 자유롭지 못했을 것이 분명하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정도의 고문 속에서도 어머니가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셨던 이유는 본인의 목숨 보다는 남아있는 우리들에게는 그 피해가 미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 때문이었을 것이다.

당시 대부분의 북한 사람들은 성경책이라는 것에 대해 보거나 들어볼 일이 없었다. 다만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사상 교육은 철저히 이루어졌다. 학교에서는 선교사들이 미군과 합세해 주민들을 죽이고 빼앗았다고 배웠다. 교회는 사람 잡아먹는 집단이고 교회와 관련된 어떤 것이든 나쁜 것이라고 배웠다. 그만큼 북한의 기독교에 대한 적개심은 상상



〈보위부 심문 장면을 묘사한 삽화 (그림=휴먼라이츠워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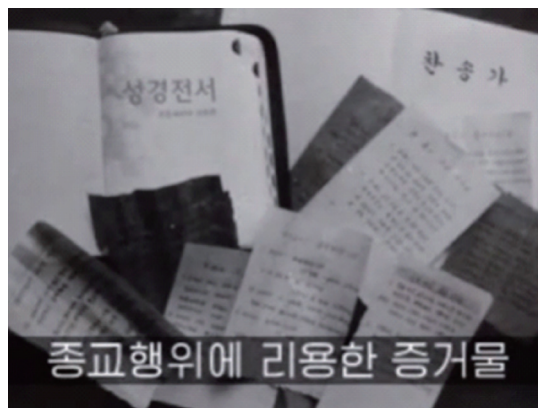
을 초월한다. 그 책을 전달받았다는 혐의가 씌워진 순간 어머니의 그간의 모든 충성과 헌신은 철저히 부정당하고 말았다.

죄를 자백하라는 보위부의 압박은 상상 이상이었다. 원래 당원이었고 성분이 좋았던 어머니였지만 그 혐의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고문이 동반된 심문은 물론이고 제대로 누워서 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좁은 독방에 수감되어 있으셨다. 이렇게 오랜 기간 심문을 진행했지만 어머니로부터 더 이상의 혐의점은 찾지 못했고, 원래 성분도 괜찮은 편이셨던 데다가 외갓집에서 온갖 방면으로 손을 쓰셔서 어머니는 겨우 살아서 출소하실 수 있었다. 그렇지만 어머니는 몸 상태가 너무나 악화되어 매우 허약한 상태였기에 친척 집에서 한 달 가량 요양을 하시고셔야 겨우 집으로 돌아오실 수 있었다.

막내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시면서 우셨던 어머니는 한참 후에 정신을 추스르시고 우리를 앞에 앉히셨다. 그러고는 “그 동안 너희들이 너무 고생했다. 앞으로는 절대로 고생시키지 않겠다. 엄마가 꼭 고생한 만큼 갚아주겠다”고 비장한 얼굴로 말씀하셨다. 그 말씀을 하시는 어머니의 웅한 얼굴이 딱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왜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곁을 지키지 못했는지, 무슨 사정이 있어서 우리를 버려두었는지 원망스럽기도 했다. 그래도 어머니가 돌아오시고 우리 가정이 다시금 평화를 되찾았다면 좋았었겠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어머니는 당원에 충성분자였던 아버지와 빼대 있는 집안의 시택이 겨우

어린 아기 하나 돌보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넘어 큰 분노를 느끼셨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버리시거나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막내의 죽음 앞에서 어머니에게는 그 어떤 변명도 말이 되지 않는 것이었다. 결국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혼이라는 안타까운 결과로 치닫게 되었고 그에 따라 우리 가족은 깨어지고 말았다.

당시에는 몇 년 사이에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의 이유를 찾을 수 없어 방황했지만, 여러 세월의 질곡을 겪고 그 당시 부모님의 나이가 된 지금은 그 아픔이 어머니나 아버지의 탓이 아님을 안다. 바로 우리 부모님께서 충성하셨던 북한과 그 체제가 우리 가족을 덮친 절망의 주요 원인이었다. 성경책 한 권 때문에, 그것도 실물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빌미로 아무런 정당한 절차 없이 어머니를 체포하고 고문했던 그 악랄한 인권 유린과 박해, 그리고 가장들을 직장에 매어놓고 통제하는 시스템 속에서 먹을 것을 구하려 다



〈북한기독교총연합회에서 2020년 3월에 공개한 황해북도 안전보위부 반종교교육 영상의 한 장면. 지하교회에서 적발된 성경책과 찬송가 등이 증거물로 제시되고 있다.〉

니지 못하시고 제대로 배급도 나오지 않는 직장에 고박고박 출근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아버지... 막내의 죽음과 가족의 깨어짐은 그로 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그렇게 충성분자로 살아온 우리 부모님의 믿음을 철저히 배신하였다. 사실 우리 가족뿐만이 아니다. 고난의 행군은 모든 북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어왔던 지도자와 당에게 배신을 당한 사건일지도 모른다.

외삼촌이 왜 우리 어머니에게 그 성경책을 건네주었는지 아직 잘 모르겠다. 어쩌면 외삼촌은 복음을 받아드리고 신자가 되었고, 어머

니에게도 그 복음을 전하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그 위험한 책을 굳이 어머니에게 건네진 않았을 것 같다. 돌이켜보면 이후에도 고난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왔고 그 속에서 많은 상처와 아픔도 있었지만 그 고난 중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어릴 적 어머니에게 건네진 성경책도 단순한 비극과 고통의 원인이 아닌 하나님의 택하심과 인도하심의 표지였을지도 모른다. 선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은 그렇게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를 찾아오셨다. (계속)



## 북한 무인기 5시간가량 영공 침투… 군 격추실패



〈2017년 강원 인제 야산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

북한 무인기가 12월 26일 5년 만에 남측 영공을 침범해 서울, 강화, 파주 상공을 5시간 넘게 머물렀지만, 우리 군은 격추에 실패했다.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5분께부터 경기도 일대에서 북한 무인기 총 5대가 식별됐다. 먼저 포착된 1대는 김포와 파주 사이 한강 중류 수역으로 진입해 곧장 서울 북부지역 상공까지 직진한 뒤 서울을 벗어나고 총 3시간가량 비행 후 북한으로 돌아갔다. 교란용으로 보이는 나머지 4대는 강화도 서쪽으로 진입해 강화도 지역에서 활동한 것이 우리 군 탐지자산에 포착되었지만 곧 소실된 뒤 항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오전부터 총 5시간여 동안 작전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우리 군 조종사가 북한 무인기 1대를 육안으로 식별했는데, 날개 전장 기준 2m급으로 보였다고 한다. 나머지는 레이더로만 포착해서 형태가 파악되지 않았다. 군은 공군 전투기, 공격헬기, 경공격기 등으로 대응에 나서 교동도 서쪽 해안에서 레이더에 무인기

가 포착되자 헬기의 20mm 기관포로 100여 발 사격을 가했으나 격추에는 실패했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국민의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응했다"며 "민가와 도심지 등이 있는 상공이다 보니 비정상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어날) 우리 국민의 피해를 고려해서 그런 지역에서는 사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북한 무인기가 우리 상공을 장시간 침범하였음에도 격추에 실패하면서 군의 대비태세에 구멍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전문가들은 북한 무인기가 생화학무기까지 운반할 수 있어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군에 따르면 북한은 300~400대에서 많게는 1천 대까지 무인기를 운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1990년대 초반부터 중국의 'D-4'를 개조한 '방현' 시리즈의 무인기를 개발해 생산했다. 북한은 또한 시리아로 추정되는 중동 국가로부터 미국산 고속표적기인 'MQM-107D'(스트리커) 여러 대를 도입해 이를 토대로 무인공격기를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4년 백령도 인근에 추락한 북한 무인기는 추정 항속거리가 180~300km였으며, 400~900g 정도의 수류탄 1개를 겨우 달 수 있는 수준이었으나, 3년 뒤인 2017년 6월, 경북 성주 사드 기지 시설을 촬영한 북한 무인기는 비행 거리 490여km, 전체 비행 시간이 5시간 30여 분으로 비행 기능이 크게 발전했다. 〈참고: 연합뉴스, 12월 26-27일〉

## 미 “북한, 러 용병회사 와그너그룹에 로켓·미사일 판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조정관 (사진=로이터)〉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고 있는 러시아 민간 용병회사인 와그너 그룹에 무기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2월 22일 전화 브리핑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그는 “북한은 지난달에 와그너 그룹이 사용할 보병용 로켓과 미사일을 러시아에 전달했다”면서 “북한이 와그너 그룹에 1차 무기 인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와그너 그룹에 인도한 무기의 규모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북한이 전달한 무기의 규모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추가 무기 공급 가능성도 시사했다.

커비 조정관은 “북한 정부 관리들은 공개적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말했으나 와그너 그룹에 무기를 인도했다”면서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 함께 안보리에서 북한의 대북 결의 위반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면서 “와그너

그룹에 대한 무기 인도를 북한은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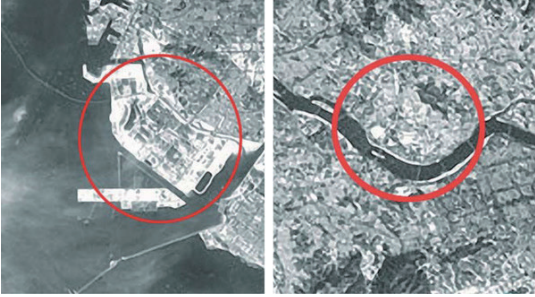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도 별도 성명을 통해 “와그너의 북한 무기 구매는 북한에 금지된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추가 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대줌으로써 한반도 불안정에 기여한다”고 우려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이번 무기 구매가 북한이 전례없이 많은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서 는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부각한 뒤 “미국은 북한과 러시아의 안보리 결의 위반을 향후 안보리 회의에서 제기할 계획”이라며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관련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도쿄신문은 12월 22일자 보도에서 11월 20일 포탄 등 무기를 실은 열차가 북한 동북부 나선특별시 두만강역과 러시아 연해주 하산역을 잇는 철로로 이동했다고 보도했다. 도쿄신문은 “북한은 무기 거래 이전에 러시아와 몇 달 동안 수백만 달러 규모의 포탄과 로켓탄을 판매하기 위한 교섭을 했다”며 “북한이 철도로 무기를 제공한 것은 최초라고 한다”고 전했다.

북한의 무기 수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1718호에 위반되는 행위다.

한편 북한은 러시아와 무기 거래가 없는 주장을 일관되게 펼치고 있다. 북한 외무성은 12월 23일 북한이 최근 철도를 이용해 러시아에 군수물자를 제공했다는 일본 보도에 대해 “황당무계한 모략”이라고 부인했다. 〈참고: 연합뉴스 12월 22일 / 23일〉

## 남과 북, 서울과 평양 위성사진 공방



〈북한이 위성시험품 탑재체에서 촬영했다고 공개한 용산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삼각지 일대와 송도 센트럴파크 일대(위), 그리고 한국 국토 위성 1호가 촬영한 평양 김일성 광장(아래)〉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이 12월 18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 단계의 중요 시험을 했다고 12월 19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특히 23년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낼 것이라고 밝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이라도 1호기 시험 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커 보인다. 위성시험품서 촬영했다는 서울과 인천항 모습도 공개했다.

합참은 12월 18일 북한이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 2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하였는데,

이것이 미사일이 아닌 위성시험품을 탑재한 운반체(로켓)를 고각발사 방식으로 고도 500km까지 쏘아 올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위성촬영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기술적으로 진일보 한 것은 맞지만, 카메라의 성능 등을 감안하면 군사정찰위성으로는 수준이하인 것으로 분석했다. 군은 전날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가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궤적이라는 평가를 유지했다.

한편 12월 20일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남한에서 제기되는 북한의 ICBM 재진입 기술 부족 및 위성 사진에 대한 흑평에 대해 반발하는 장문의 담화를 발표하였다. ICBM 재진입 기술 입증을 위해서는 고각이 아닌 정상각도 발사를 보아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곧 해보면 될 일이고 곧 보면 알게 될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밝혔는데, 이는 북한이 머지않아 ICBM을 고각 발사가 아닌 정상 각도(30~45도)로 발사할 계획이 있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편 한국 정부는 12월 22일 북한이 '정찰위성 시험품'에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 도심 사진을 공개한 지 사흘 만에 '국토위성 1호'로 촬영한 평양 김일성 광장 일대 사진을 공개하였다. 정부가 공개한 컬러 사진은 선명하게 김일성 광장 일대의 모습을 포착해 흑백으로 흐릿하게 찍힌 북한 측 사진과 뚜렷한 대조를 이뤘다. (참고: 언론보도 종합, 12월 18-22일)

## 한국영화와 불순녹화물 유통 북한 고3 두 명 공개처형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간 9살 소년을 그린 애니메이션 영화 '리멤버 미'의 공개 총살 장면〉

자유아시아방송은 12월 2일 양강도의 한 소식통을 인용해 남조선영화와 불순녹화물(포르노)을 시청하고 그것을 유포한 학생 두 명이 지난 10월 혜산에서 공개 처형되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한국 영화, 드라마와 포르노영상을 친구들에게 유포한 것이 82연합지휘부(비사그루빠)에 의해 발각되었으며 공개처형은 혜산 비행장 활주로에서 진행되었다고 한다.

소식통은 82연합지휘부의 단속 방법과 관련해, 연합지휘부에 있는 보위부가 주민들 속에 스파이를 심어놓는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그 스파이는 한국영화를 보기도 하고 직접 사기도 하면서 누가 한국영화를 파는지 조사해 보위부에 보고

하는데, 이번에도 그런 함정에 학생들이 걸려든 것이라 설명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10대 학생들이 한국영화를 시청하다 한번 단속되면 노동단련대 처벌이, 다시 또 단속되면 5년의 노동교화소 처벌과 학생의 부모도 자녀교양 책임을 물어 노동교화소에 수감되지만, 한국영화와 드라마를 유포하거나 판매하다 단속되면 미성년자라도 사형에 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공개 처형에 대해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도 동일한 내용을 증언하였다. 소식통은 공개처형 이후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적 행위를 전문 단속하는 82연합지휘부에서 반동사상문화를 뿌리 뽑는다고 보위부·안전부·검찰·재판기관 간부들로 연합타격대를 조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국은 82연합지휘부의 지휘 밑에 있는 사법기관들은 남조선영화 등 불순녹화물과 출판물을 소지하거나 유통한 자는 조사를 질질 끌지 말고 수사와 예심, 재판공정을 속전속결로 처리해 공개투쟁에서 단호하게 처리하라는 지시를 내려 앞으로도 공개처형이 행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참고: 자유아시아 방송, 12월 2일)



## 평양에서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소탕 진행... 2중 3중 야간순찰, 한 구역서 1000명 자백

북한이 평양에서 한류 소탕전을 벌이는 가운데 서성구역에서만 1000여명의 관련 범죄자들이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월 26일 조선일보는 ‘수도에서 온갖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현상을 쓸어버리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도 높고 벌여나가자’라는 제목의 영상을 입수하고 이 같이 보도했다.

북한당국이 주민선전·교양용으로 올해 상반기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해당 영상의 앞 부분에는 “사회적으로 우심하게 나타나는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 행위들을 제압하고 엄격히 통제하는 것은 오늘 우리 앞에 중대한 과업으로 나르고 있습니다”라는 김정일의 지시가 인용됐다.

이어 평양시에서 진행되는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소탕 상황이 각 구역별로 구체적으로 소개되었다. 김일성 생가가 있는 만경대구역에서는 모두 140건의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범죄행위를 적발·처리했다고 밝혔다. 영상은 “만경대구역에서는 매주마다 일군들에게 군중정치사업과 전과자·여소자들에 대한 교양분공을 주고 집행정형과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투쟁 관련 분야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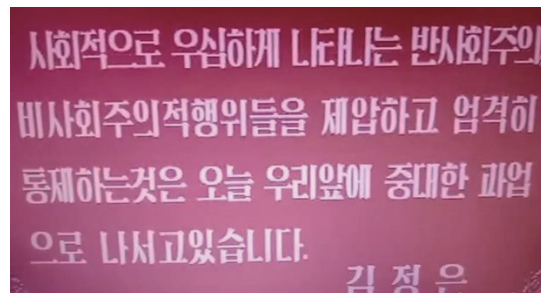
상적으로 총화해서 일군들이 원칙성과 계급성·헌신성을 가지고 사업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법일군들이 인적이 드문곳까지 살펴보도록 구체적인 분공을 주고 야간 순찰을 2중3중으로 강화해서 범죄자들이 활개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준법교양과 주민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려 모든 단위들에서 자위경비체제를 철저히 세우고 근로자들과 주민들이 신고사업에 철저히 참가하도록 하고 있다”고도 했다. 평양 출신 고위급 탈북민A씨는 “야간 순찰을 2중 3중으로 한다는 것은 평양시에서 각종 범죄행위가 만연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김정일이 평양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서성구역에서는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를 근절시키기 위한 선전선동사업의 결과 1000여명의 주민들과 학생들이 지난시기 저지른 불법행위들을 반성하고 자백했다고 밝혔다.

대북소식통은 “다른 영상에서는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로 적발된 평양시 주민들의 신상과 죄명을 구체적으로 까밝히고 있다”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한류를 원천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지난 2020년 12월 ‘남조선 영상물 유포 시사형’ 등 극단적 처벌 조항을 넣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정 이후 전국적으로 대대적 한류 소탕에 나섰다. 북한당국의 강력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부에선 한류가 확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참고: 조선닷컴, 12월 26일>



## “아들딸 많이 낳는게 애국”... 북, ‘저출산 고령화’에 출산 장려



북한도 ‘저출산 고령화’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출산 장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2월 23일 ‘자식들을 많이 낳아 훌륭히 키우는 것은 나라를 위한 장한 일’ 제하 기사에서 “아들딸들을 많이 낳아 훌륭히 키우는 것이 조국의 미래를 가꾸는 애국사업이며 나라와 민족의 전도와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신문은 “조국의 앞날을 떠메고 나갈 기둥감들이 많아야 사회주의 조국도 철벽으로 튼튼히 지킬 수 있으며 나라와 민족의 영예도 떨칠 수 있다”며 평양시 낙랑구역에서 여덟 남매를 낳아 기르는 여성 김춘영씨 등을 모범 사례로 소개했다.

북한은 남한과 마찬가지로 저출산 기조가 이어지며 생산인구(15~64세) 부족을 겪고 있다.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여성 노동력 활용을 위해 출산을 억제했다. 그러나 1990년대 ‘고난의 행군’으로 아사자가 속출하고 출산율이 꺾이면서 노동력 부족이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월드 팩트북에 따르면 올해 북한 인구 2천595만5천138명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9.75%를 차지했다.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로 분류된다.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1.9명(세계 127위)으로 지난해(1.91명)보다 0.01명 줄었고, 인구 1천 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14.21명(세계 124위)으로 작년보다 0.14명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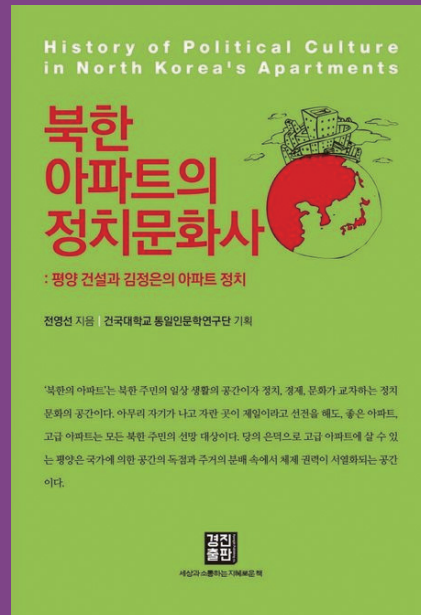
이에 북한은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내놓고 군 복무기간을 줄여 경제활동인구를 늘리는 쪽으로 대응하고 있다. 여성권리보장법 50조에 “삼태자, 다태자를 낳아 키우는 여성과 어린이에 담당 의사를 두고 훌륭한 살림집과 약품, 식료품, 가정용품 등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 같은 특별한 배려와 혜택을 돌린다”고 규정했다. 북한 당국은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에도 주택 우선 배정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노동신문은 주기적으로 북한 최고의 산부인과인 평양산원에서 ‘다둥이’가 태어난 소식을 대대적인 경사로 보도하고 있다.

국정원은 지난해 2월 국회 정보위 업무보고에서 북한군 복무기간이 남성은 현행 9~10년에서 7~8년으로, 여성은 6~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됐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 여성들은 가부장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 집안일과 육아를 대부분 전담하면서 장마당 활동으로 경제적 부양책임까지 도맡는 경우가 많아 인구구조에 당장 반전을 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참고: 연합뉴스 12월 23일)

## 북한 이해를 위해 더 읽을만한 책



**제목:** 북한 아파트의 정치문화사:  
평양 건설과 김정은의  
아파트 정치

**저자:** 전영선

**출판사:** 경진출판

**발행일:** 22년 5월 25일

**가격:** 15,000원

한국에서 아파트를 포함한 주거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다. 더 좋은 입지에 위치한 더 나은 집에서 살길 바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선호하는 바이겠지만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특별히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무래도 아파트가 제공하는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과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상권과 생활권이 여러 모로 생활에 편리하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북한에 대한 뉴스에서 눈에 띄는 건축물도 바로 아파트이다. 평양의 으리으리한 고층

아파트들은 한국의 보통의 아파트와는 다른 색상과 생김새이긴 하지만 우리 눈에도 상당히 멋져 보이는 외관을 가지고 있다. 북한이 자랑하는 여러 고층 아파트들을 보고 있으면 북한에 많은 주민들이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좀처럼 실감이 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경제적으로 열악하다는 북한이 왜 이런 고층 아파트를 건설하는지, 또 열악한 인프라 속에서 고층에 거주하는 이들은 불편하지 않은지 여러 궁금증도 가지게 된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이런 고층 아파트를 건

설하고 선전할까? 북한에서 아파트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이러한 궁금증에 대해 설명해주는 책이 오늘 소개할 건국대학교 전영선 교수가 쓴 “북한 아파트의 정치문화사: 평양 건설과 김정은의 아파트 정치”이다. 이 책은 북한의 아파트 역사와 문화에서부터 김정은 시대의 아파트 정치까지 북한의 주거 환경과 아파트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북한의 아파트를 포함한 부동산에 대해 단순한 이론적 탐구나 분석을 넘어 인문학적 접근을 통해 북한 사회에서 인식되는 아파트의 의미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저자는 북한의 여러 문학, 영상 작품들에서 드러나는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나 표현들을 정리하여 보여줌으로서 단순한 사실 전달만이 아닌 북한 사람들이 아파트를 보면서 일반적으로 느끼는 감정과 욕망의 결도 자연스럽게 전달하고 있다. 물론 역사적인 사건과 사실들에 대한 설명도 빼놓지 않고 있다.

이 책의 흐름을 따라가다보면 북한에서 평양의 아파트는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닌 신분 상승의 상징임을 알 수 있다. 북한은 “어떻게 도시를 건설하고 어떻게 짓고 분배할 것인지는 온전히 국가의 몫”이기에 특별한 아파트는 바로 “당의 따뜻한 선물”을 의미한다. 평양을 비롯한 도시 건설의 모든 성과는 “수령과 당의 은덕”이다. 좋은 아파트를 얻기 위한 경

쟁도 치열하다. 어느 지역의 어떤 아파트에 사느냐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보여준다. 이 책은 북한에서 아파트는 “국가에 의한 거주 공간의 독점과 분배 속에서 체제의 권력이 서열화되는 권력 쟁투의 공간”이라고 결론짓는다. 즉 북한에서 아파트는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닌 사회적 지위와 권력의 상징인 것이다.

언뜻 들으면 굉장히 딱딱하고 어려운 이야기로 들리지만 이 책이 결론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은 의외로 흥미롭다. 북한 사회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제시하며 편안한 어조로 이를 풀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는 이 책을 통해 북한에 집이나 아파트의 이야기를 담은 책과 드라마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었는지 처음 알게 되었다. 짧게 인용되어있기는 하지만 아파트에 대한 욕망과 주거문제에 대한 여러 고민과 갈등이 여러 문학 작품과 드라마에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이 흥미로웠다.

북한의 시장 발달과 그에 따른 경제 변화에 대해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북한의 아파트를 포함한 거주환경과 부동산에 대한 이해는 매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자칫 어렵고 딱딱한 주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인문학적인 접근을 포함하며 편안하게 풀어낸 만큼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책으로 추천해본다. 📖



**1** 북한의 기독교 박해 중단과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기독교 박해가 감소하지 않았고 여전히 극심한 상태에 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코로나 기간 동안 박해로 인하여 지하교회와 성도들이 겪은 순교와 고난의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반동사상문화법 및 청년교양보장법 등 코로나 기간에도 기독교 박해에 이용될 수 있는 여러 법률을 만들었던 북한은 경제 제재와 방역으로 인한 국가적 어려움을 더욱 강력한 통제와 억압으로 풀어내고 있고, 그 과정에서 기독교에 대해서도 극심한 박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진정으로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임을 확신합니다. 박해로 인해 고통 받는 성도들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중단하고 과오를 반성하며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북한의 긍정적 변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 당국은 22년 한 해 동안 핵과 미사일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그러나 핵과 미사일 개발은 경제적 어려움과 한미의 군사적 대응 강화 등 오히려 북한을 스스로 옥죄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자행하는 인권 유린과 기독교 박해 등은 북한의 국제적 이미지를 크게 악화시키고 더 나아가 협상 대상으로서 신뢰할 수 없도록 인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북한이 살기 위해서는 억압과 군사적 위협이 아닌 인권 개선과 국가 운영 방향의 전환이라는 긍정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북한이 우상 숭배와 인권 억압의 악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특히 많은 기독교인과 그 가족이 신앙을 이유로 무고하게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치범 수용소들이 하루 속히 철폐되도록 기도합니다.

**3**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들의 석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작년 11월 한미일 프놈펜 공동성명에서 한국인 억류자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3국 정상들이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향후 북한과의 협상에서 이 문제들이 중요한 의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향후 억류자 석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현재 한국인 김정욱(2013), 김국기(2014), 최춘길(2014) 선교사와 탈북민 출신 김원호(2016), 함진우(2016), 고현철(2016)씨, 그리고 조선족 사역자들이 억류되어 있습니다. 억류자들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4** 중국이 줄곧 고수해왔던 제로코로나 정책을 포기하고 급속도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우려는 여전히지만 내외국인에 대한 통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

여 23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인명 피해를 최소화 하는 가운데 코로나 상황을 잘 극복하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해외 북한 선교 현장이 안정화되어 선교사님과 현지 사역자들이 안전하게 다시금 사역을 재개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새로이 변화되는 선교 환경에 맞는 사역들이 잘 개발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5** 최근 중국당국의 코로나 전수검사를 통해 단둥지역 거주 북한노동자의 수가 8만여 명으로 확인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2017년 유엔안보리가 북한노동자의 해외파견을 금지하는 제재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북한노동자가 해외로 파견된 것입니다. 단둥 외 지역과 러시아 등 다른 나라까지 생각한다면 해외 북한노동자의 수는 상당히 대규모일 것입니다. 이들은 해외를 경험하며 북한을 객관적으로 볼 기회를 얻은 이들이며 여러 경로를 통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해외에 파견된 노동자들이 해외 경험을 통해 북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안목을 갖게 되며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요.

**6** 탈북민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22년 10월에 양천구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혼자 살던 탈북민이 시신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11월 7일에는 탈북민 A씨(23)가 경남 김해시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탈북민들을 찾아서 돌보는 가운데 영적인 생명을 전하는 교회의 사역이 필요하지만 탈북민 교회 중 상당수가 목회자 사례비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코로나 시기 출석교인수 감소 및 재정 악화로 큰 타격을 입었고 여전히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3국 및 하나원 등을 거치며 기독교 신앙을 접하고 신앙훈련을 받은 많은 탈북민들이 교회에 속하지 못하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탈북민들을 향한 영적 돌봄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탈북민 사역에 열심을 내고 있는 교회와 사역자들이 지치지 않도록, 한국교회가 탈북민을 섬기는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7** 북한 경제와 주민들의 생존을 위해 기도합니다. 최근 국제적인 인플레이션과 북한의 부족한 식량 생산 등 북한 주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열악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북중 화물열차 운행 등 물자 반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혹독한 추위의 겨울은 주민들의 생존을 더욱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북한 사람들을 돕고자 애쓰고 있는 오픈도어선교회를 포함한 선교단체와 기독교

NGO의 사역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올 겨울 북한주민들의 겨울나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제거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8** 북녘을 향한 라디오 복음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픈도어선교회는 생명의 강 방송, 극동방송, 북방선교방송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북한의 봉쇄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라디오 방송 사역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를 막고자 하는 북한의 전파방해도 올해 들어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북녘의 청취자들이 안전하게 방송을 들으실 수 있도록, 기상 악화나 북한의 방해전파 등으로 인한 음질 저하 및 청취 장애가 발생하지 않고 복음의 메시지가 깨끗하게 북녘에 전달되도록 기도합니다. 사역에 참여하는 모든 일꾼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특히 새해를 맞아 프로그램 개편이 잘 이루어지고 더욱 유익하고 효과적인 방송 프로그램들이 제작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동작 우체국 사서함 56호 우편번호 07056  
\* TEL 02-596-3171  
\* Home Page : [www.opendoors.or.kr](http://www.opendoors.or.kr)  
\* E-mail : [info@opendoors.or.kr](mailto:info@opendoors.or.kr)

☐ 후원계좌 (북한선교)  
국민은행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9301-04-169183

북한월간개발소식 / 등록일 : 2010년 9월 27일 / 등록번호 : 성북, 라 00067 / 발행년월일 : 2022년 12월 30일



# 한국오픈도어선교회 간사 모집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돕고 믿음 안에 굳세게 세우는 일에 헌신하여 사역하고 있는 한국오픈도어선교회는 다음과 같이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돕는 일에 헌신할 간사를 구합니다.

**모집 분야** International Communicator (커뮤니케이터) ○명 (전임)  
Finance Officer (회계 간사) ○명 (전임)

## 지원 자격

- **공통**: 고난 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돕는 일에 열정과 사명을 가진 분
- **커뮤니케이터**: 영어 동시통역과 번역 가능하고, 영문 보고서 업무와 영문 기사를 작성할 수 있는 학사 이상 전공자 혹은 경력자 (영어 업무 필수- 국제본부 기준에 따라 리포트, 커뮤니케이션, 소통에 영어 사용 필수)
- **회계 간사**: 회계 관련 지식이 있으며 (관련 자격증, 학위, 실무 경험자 우대) 영어 능력 우수자 (필수, 영어로 의사소통과 문서 작성 필요)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 우대사항

- **공통**: 외국계 기업이나 NGO 등 영어를 사용한 업무 환경에서 2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 우대
- **공통**: 해외 선교 경력이나 훈련 경험 우대
- **회계 간사**: 회계 자격증 소지자, 컴퓨터 활용능력 우수자

**사역 조건** 4대 보험 지원, 급여 개별 협의

##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신앙고백서(홈페이지 양식 참조)- 한글과 영어로 제출
- 추천서 2부 (목사님 추천서 포함), 최종학력 증명서 및 관련 증명서 사본 (면접시 지참)
- 제출처: 이메일 [info@opendoors.or.kr](mailto:info@opendoors.or.kr)

## 기관 소개

- **홈페이지** ([www.opendoors.or.kr](http://www.opendoors.or.kr)) 참조
- **모집 기한**: 구인시까지
- **문의**: 이제나 간사 (커뮤니케이터 문의 010-4668-6356)  
송레아 간사 (회계 간사 문의 010-9717-0341)
- **이메일**: [info@opendoors.or.kr](mailto:info@opendoors.or.kr)



# 2023 오픈도어 북한선교학교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굳세게 하라는 주님의 소명에 순종하는  
한국오픈도어선교회에서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북한 선교와 통일 준비에 도움을 드리고자  
북한선교학교를 개최합니다.

통일과 북한 선교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품는  
기회가 될 북한선교학교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 강의 내용

순서	일자	강의 내용 (예정)	강사
1	3. 20	북한 선교와 한국 교회	하충엽 교수 (송실대)
2	3. 27	북한의 정치와 주체사상	정종기 교수 (아신대)
3	4. 3	북한의 경제 (장마당과 돈주)	정은찬 교수 (통일교육원)
4	4. 10	북한의 사회와 문화	강동완 교수 (동아대)
5	4. 17	북한 기독교사	유관지 목사 (북한교회연구원)
6	4. 24	북한기독교 박해 실태 증언	박한나 목사
7	5. 1	교회의 탈북민 복음화와 통일목회	김효민 목사 (봉선중앙교회)
8	5. 8	북한인권과 북한선교	이한별 대표 (북한인권증진센터)
9	5. 15	탈북 청소년 사역	윤동주 교장 (우리들학교)
10	5. 22	비즈니스미션과 북한선교	이찬욱 사무총장 (IBA)
11	5. 29	DMZ 기도회	
12	6. 5	국제협력을 통한 북한선교	정인수 선교사 (CCC)
13	6. 12	미디어를 통한 북한선교	성훈경 대표 (TWR)
14	6. 19	제삼국에서의 북한선교	오픈도어 현장사역자
15	6. 26	제삼국에서의 북한여성사역	오픈도어 현장사역자
16	7. 3	북한의 지하교회와 그루터기 신자	김성태 교수 (오픈도어선교회)
17	8월	제 삼국 비전 트립	

■ 일 시: 23년 3월 20일 - 7월 3일,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비전트립, DMZ기도회 별도)

■ 장 소: 추후 공지 (서울 내 장소 예정)

■ 수강 신청: 3월 1일-17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홈페이지 ([www.opendoors.or.kr](http://www.opendoors.or.kr))에서  
온라인 접수, 3월 20일 현장 접수

■ 등록비: 15만원 (목회자, 신학생, 탈북민, 그리고 이전에 오픈도어 북한선교학교를  
수료하신 분의 경우 50%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 문 의: 이정현 간사 (010-2618-4906)



**Open Doors**  
Serving persecuted Christians worldwide



